

| Bi-Weekly |

신영 ESG

“ 미국의 기후 공시 시계, 자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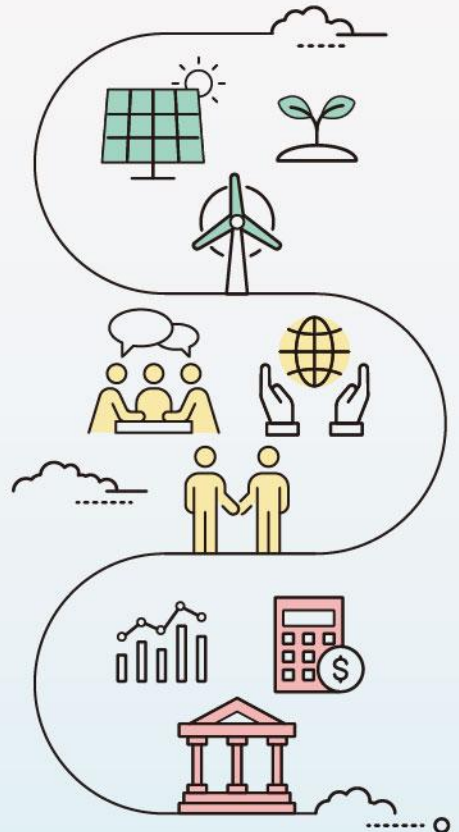
ESG 탐방 노트

현대건설

ESG ETF 따라잡기

iShares ESG Select Screened S&P Small-Cap
ETF(XJR)

ESG News Clipping



미국의 기후 공시 시계, 자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미국의 경우 SEC의 기후 공시는 폐지 절차에 들어가고, 캘리포니아의 SB 261도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강한 ESG 역풍을 겪고 있음

미국 기업들,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SB261) 자발적 제출 이어져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의 도입과 시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규제 완화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ESG 역풍으로 인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지역이 존재함.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시절 호기롭게 도입을 추진했던 SEC의 기후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가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중단된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있음. 또한 SB253(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기후 기업데이터 책임법)과 SB261(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Disclosure Program, 기후관련 재무위험 공시)을 제정하며, 미국 내 최초로 포괄적인 기후 공시 의무를 도입했던 캘리포니아도 소송¹으로 인해 SB261의 시행은 일시 중단된 상태임.

SB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총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며, SB261은 그 절반인 매출액 5억 달러 초과 기업이 대상임. 매출액이 5억 달러는 넘지만 1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SB261만 해당하며, 10억 달러를 초과하면 두 법안 모두 적용 대상임. 캘리포니아의 주법인 SB253, SB261은 기업의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지, 상장 기업인지, 혹은 이전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됨. 약 5,300개의 SB253 보고 대상 기업과 10,000개 이상의 SB261 보고 대상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에게는 사실상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재 SB261의 시행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CARB는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소송 종료 전까지 자발적 제출을 허용 → 이에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출중

특히 SB261의 경우 소송으로 시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CARB의 세부 시행규칙 확정도 늦어지고 있음. 하지만 CARB는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소송 종료 전까지 자발적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 5월 26일 기준 157개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PwC는 CARB의 공개 문서함에 1월 30일까지 올라온 초기 94개의 SB261 관련 자발적 제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¹ 2025. 11. 18.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소심 판결 전까지 SB261의 집행을 일시 중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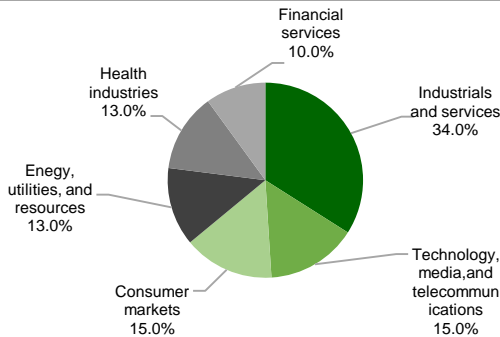
PwC는 초기 94개의 SB261 관련 자발적 제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① 기후 관련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았음
 ② 시나리오 분석 접근 방식은 다양한 성숙도를 보여줌 → 57%는 정성적, 21%는 정성+정량적 기법 활용
 ③ 측정 지표 및 목표 공시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PwC에 따르면 제출된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음. 먼저 대부분의 기업은 물리적 기후 위험과 전환 기후 위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회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험이나 기회가 없다고 보고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음. 두번째는 시나리오 분석 접근 방식은 다양한 성숙도를 보여줌. 정성적 시나리오 분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분석 대상 기업의 21%는 이미 정량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기후 위험 모델링에 대한 초기 단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세번째는 측정 지표 및 목표 공시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출 자료의 대다수는 스코프 1 및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스코프 3 배출량도 공시하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시한 자료는 약 60%에 불과하며, 정보의 깊이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94개의 보고서 제출 기업 중 63%가 처음으로 기후 공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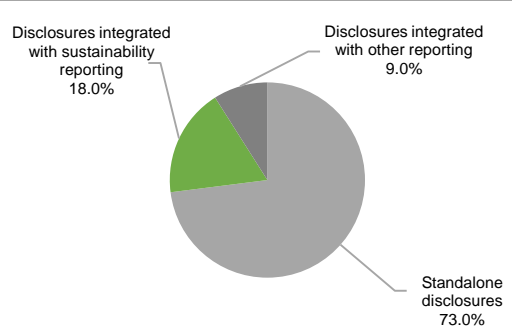
초기 94개의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그 중 산업 및 서비스 부문(34%)이 초기 제출 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캘리포니아 주법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에게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초기 자발적 보고 기업 중에서는 비상장 기업의 수가 상장 기업보다 약간 더 많았음. 특히 이 94개 기업 중 63%는 기후 공시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기업이었음. 또한 제출된 보고서 중 73%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제출함.

도표 1. 초기 보고서는 여러 업종에 걸쳐 제출됨



자료: PwC, CAR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자발적 제출자가 사용한 보고 방식



자료: PwC, CAR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91%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함께 기후 위험을 감독

기업 공시 내용을 보면 기후 위험은 더 이상 ESG 부서만의 관리 항목이 아니라 재무·위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남.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91%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함께 기후 위험을 감독한다고 밝힘. 이사회는 감사(37%), 기업 지배구조(29%), 지속가능성(20%), 위험 관리(16%) 등 여러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함께 감독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사회 차원의 관여가 전혀 없다고 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음.

분석 대상 중 77%는 기후 위험을 전사 위험 관리(ERM)에 통합 → 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저배출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사업 기회로 함께 공시

보고서 공시 품질은 균일하지 않음: 초기 보고서의 91%가 TCFD 기준 정보 공시 → 이 가운데 34%는 정량 시나리오 분석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일부 권고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

약 60%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시했는데, 목표 설정 방식과 제공되는 세부 정보 수준은 제출된 자료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 ESG 역풍이 강한 미국 조차 규제 시행이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후 공시에 나서고 있음을 정책 입안 시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분석 대상 중 77%는 기후 위험을 전사 위험 관리(ERM) 체계에 통합했다고 공시함. 대부분의 보고서에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이 모두 언급되었는데 폭염·폭우·산불 등 극단 기상 현상의 강도 증가, 평균 기온 상승 같은 물리적 위험과 규제 강화, 저탄소 기술 전환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해관계자 기대치 상승과 같은 전환 위험이 핵심 변수로 제시됨. 반면 상당수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저배출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사업 기회로 함께 공시함. 다만 의미 있는 기후 위험이나 기회가 없다고 밝힌 기업이 전체의 7%에 불과했음.

SB261 법안은 기본적으로 TCFD 프레임워크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ISSB의 기후(S2) 표준을 비롯한 다양한 기후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에 맞춘 정보 공시도 허용하고 있는데, 초기 보고 기업 중 대부분(91%)이 TCFD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공시 품질은 아직 균일하지 않았음. 이 가운데 34%는 정량 시나리오 분석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일부 권고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시나리오 분석 수준도 차이를 보였는데 정성적 분석만 사용한 비중은 57%였으나, 정성적 방법 외에 정량 기법까지 같이 활용한 기업은 21% 수준이었음. 또한 기후 위험이 실제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공시한 기업은 13%에 불과했음.

조사 대상 기업 중 76%는 스코프 1 및 2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56%였음.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시된 범주가 다양하지만, 범주 1(구매 재화 및 용역), 범주 3(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범주 6(출장)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 또한 약 60%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시했는데, 목표 설정 방식과 제공되는 세부 정보 수준은 제출된 자료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전세계 여러 ESG 규제 체계의 핵심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처럼 ESG 역풍이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규제 시행이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후 공시에 나서고 있음을 정책 입안 시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상당수 기업들이 기후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 체계 구축에는 나서고 있지만, 실제 감축 실행과 정량 관리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인 점도 고려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한편 기업들이 직면한 국내외의 다양하고 중복되는 공시 의무를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정책 설계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SKT, 전국 통신인프라 기후위험 재무영향 연결 대응체계 구축

- SK텔레콤은 전국에 분포한 수십만 개 사이트 및 수 백만 개 장비를 대상으로 산불/태풍/폭우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재무영향으로 산정하는 기후공시 체계를 4~5년째 구축 중
- ESG 전담 조직을 넘어 재무·회계·인프라 및 종속 회사가 전방위로 참여하는 사내 워킹그룹을 4년째 운영, 외부 리스크 모델의 신뢰성을 실제 재해 피해 데이터와 비교 검증(백캐스팅)하는 거버넌스 확립

Comments

- MSCI 등 외부 평가모델로 물리적 위험을 분석하는 동시에, 실제 자연재해 피해금액과 비교하는 '백캐스팅' 작업으로 모델 신뢰성 검증함
- 전사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실측 데이터로 외부 모델까지 검증하는 SK텔레콤의 접근은, 기후공시를 ESG 홍보가 아닌 진짜 재무정보로 다루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할 만함

- Analyst 정원석

美 정유사, 바이오연료 사업 흑자 전환...투자 확대는 미지수

- 미국 정유사들의 바이오연료 사업 수익성이 반등. EPA의 혼합 의무 확대와 디젤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발레로, HF 싱글레어, 필립스 66의 재생연료 실적이 개선
- 핵심은 정책 수요 확대. EPA는 바이오 디젤/재생디젤 사용량 확대 계획을 제시했고, 기존 에탄올 혼합 의무도 유지. 공급 과잉으로 눌렸던 수익성이 회복되는 배경

Comments

- 발레로와 HF싱글레어는 재생디젤 부문이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필립스66도 손실 폭을 축소하며 재생디젤 공장 가동률 개선을 언급
- 다만 지속성은 불확실. 대두유 등 원료 가격 상승, 디젤 마진 개선, 과거 투자 실패 경험 탓에 신규 설비 투자에는 신중한 분위기
- 단기 실적은 개선됐지만, 구조적 회복 여부는 정책 강도와 원료비, 디젤 가격 흐름에 좌우될 전망

- Analyst 신흥주

ESG 최대 위험, 기후보다 거버넌스로 이동...글로벌스캔 조사

- 글로벌 기업 담당자들, 거버넌스 위험에 전례 없는 경고등
-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글로벌스캔이 발표한 '2026 기업업무(Corporate Affairs)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이 오랫동안 ESG 핵심 의제로 꼽혀왔지만, 최근에는 윤리·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실패, 그린워싱, 경영진 위험 등이 기업 평판에 더 치명적인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 환경은 관리 영역 진입, 배일 벗는 기업 내부 윤리에 투자자들 주목

Comments

- '2026기업업무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자사가 직면한 가장 큰 ESG 평판 위험으로 지배구조(G) 요인을 꼽음 → 2024년 조사시 29%에서 가파르게 상승 → 기업 내부의 투명성, 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망 강화가 원인
- 반면 환경(E)은 2024년 39%에서 올해 27%로 급락
- 사회(S)는 예년과 비슷한 30% 수준을 유지
- 글로벌 규제 기관들의 환경 공시 압박이 정형화되면서 기업들이 환경 대응에는 익숙해진 반면, 복잡한 공급망 관리나 내부 고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같은 지배구조 위험은 높아졌기 때문

- Analyst 오광영

현대건설(000720.KS)

매수(TP 190,000원)

ESG 기초가 미래 경쟁력

현재주가(5/29) 147,0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A Bloomberg 96.80 98.90 71.60 68.4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05. 29) 시가총액(억원) 163,693 배당수익률(26F,%) 0.5 외국인지분율(%) 25.5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5인 34.9 % 국민연금공단 10.0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8 -10.7 119.4119.7 KOSPI대비 상대수익률 -31.2 -34.2 1.6~29.5
--	-----------------------------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6,129	5,449	LTIFR	%	0.389	0.370	주주총회	1 주전 홈페이지 공고
폐기물 발생량	천톤	1,289	1,272	기간제 근로자 비율	%	29.3	6.3	전자투표제	실시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411	452	여성 근로자 비율	%	11.6	11.0	집중투표제	미실시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ISO 50001 획득			사회 공헌지출	억원	138.8	146.2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25년 800 원 배당 지급
환경경영 조직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위원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이사회 운영 실적	(2024년 기준) 10 회

ESG 관련 최신 활동

현대건설, 'H-Leaders' 정기총회 개최... 236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조선비즈, 26.04.29)	현대건설, 이토추상사와 수소에너지 전환 신사업 맞손 (뉴시스, 26.05.14)	현대건설, 세계적 인프라 건설기업과 에너지 사업 맞손 (연합뉴스, 26.0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품질·수행·구매 등 부문별 평가를 실시해 'H-Prime Leaders' 38개사와 'H-Leaders' 198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협력사에는 계약이행보증 감면과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 현대건설은 166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ESG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건설, 이토추상사와 수소 에너지 전환 관련 신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사는 수소 생산·공급 신사업을 추진하며 이토추상사가 사업 총괄 및 투자를, 현대건설이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함 현대건설과 이토추상사는 인도네시아 사롤라 지역발전소, 파나마 메트로 3호선을 함께 수행했고, 25년에는 양수발전·데이터센터·암모니아·LNG 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건설이 글로벌 건설기업 위빌드와 '대형 인프라 및 양수발전 등 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함 위빌드는 지난해 ENR 선정 수자원 부문 1위 기업임. 2024년 전 세계 양수발전 설비 용량이 약 189GW로 5% 증가한 가운데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미래 에너지 전략사업인 양수발전 분야의 영향력 확대 도모

ESG history

연혁	내용
2010년	[S] 임직원 자발적 급여 모금인 '사랑나눔기금' 운영 개시 [G]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UN Global Compact 공식 가입
2011년	[G]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건설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계열사 편입 완료
2012년	[E] 건설업계 세계 최초로 ISO50001, ISO14001 인증 취득
2018년	[ESG] KCGS ESG 종합등급 A등급 첫 취득
2020년	[G]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발족
2021년	[E] 이사회 의결로 탈석탄 선언 [E] 미국의 Holtec International과 SMR 개발 및 협약 체결 [S] 안전관리비용 1,000억원 이상 확대 계획 발표 및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 4대과제 추진
2022년	[E] 국내 건설사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선언 [E] 신재생에너지 조직 개편 및 뉴에너지 사업부 신설과 해상풍력, PPA 사업 진출
2023년	[E] 한수원과 청정수소 사업화 MOU 확대
2026년	[E] H-Road 전략 발표. 원전 부문 확대와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수소, 암모니아 시장 집중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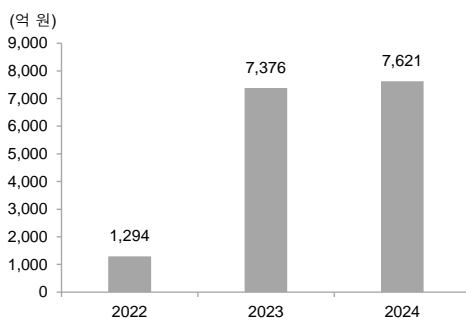
ESG 전략 -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의 중심

동사는 2045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수소, 액체수소 저장, 원전·SMR 등 에너지 전환 인프라 영역을 확대 하며,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와 안전·공급망 관리 체계를 사업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있음. 지난 5월 동사는 일본 종합상사 이토추상사와 수소 에너지 전환 관련 신규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는 동사의 ESG 전략이 단순한 탄소배출 감축 선언을 넘어, 수소·암모니아·LNG 등 에너지 전환 인프라 영역에서 실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건설 현장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리스크는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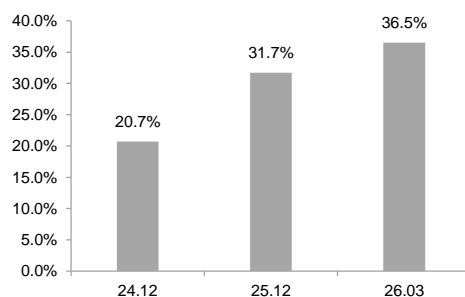
다만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건은 동사뿐 아니라 건설업 ESG 경영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보여줌. 건설업에서 안전과 품질은 ESG 중 사회 영역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공공 인프라 사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거버넌스 이슈임. 현장 단위의 품질관리 책임, 설계·시공 검증 프로세스, 하도급·감리와의 협업 체계, 문제 발생 시 투명한 보고와 사후 개선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번 사안은 단기적으로 평판 리스크 요인이지만, 향후 동사가 현장 품질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도화하는지에 따라 ESG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도표 1. 현대건설 녹색 구매 실적



자료: 현대건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현대건설의 플랜트/뉴에너지 사업부 매출 비중 추이



자료: 현대건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현대건설의 지배구조



자료: 현대건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iShares ESG Select Screened S&P Small-Cap ETF (XJR)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5.29)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0/09/24	KEYCORP	3.38%		
기초지수	S&P SmallCap 600 Sustainability Screened Index	FOCUS PARTNERS WEALT	3.25%		
구성종목수	542	BAILARD INC	2.74%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140.73	LPL FINANCIAL LLC	2.1%		
시장가격(USD)	49.37	FRANKLIN RESOURCES	1.96%		
NAV(USD)	49.38	INVERA WEALTH ADVISO	1.89%		
총보수(%)	0.12	HIGHLAND FINANCIAL A	1.80%		
운용사	BlackRock	BILTMORE FAMILY OFFI	1.12%		
		BROWN ADVISORY INC	1.09%		
		CITADEL ADVISORS LLC	1.04%		
		BANK OF NEW YORK MELLON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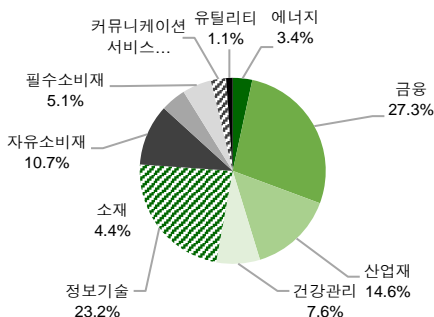
ETF 개요

iShares ESG Select Screened S&P Small-Cap ETF (XJR)는 2020년 9월 상장된 ETF로, 핵심 미국 중 소형주 중 특정 논란이 되는 사업 분야에 대한 노출을 배제한 S&P SmallCap 600 Sustainability Screened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기초 지수는 S&P SmallCap 600 지수를 기반으로 담배, 논란이 되는 무기, 화석 연료 관련 사업에 일정 기준 이상 관여한 기업을 제외한 지수임. 기업 평가는 특정 논란이 되는 사업 활동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 짐. 또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또는 셰일 매장량을 보유한 기업과 UNGC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도 제외됨. 또한 경제 범죄, 부패, 사기, 인권 침해, 노동 분쟁, 작업장 안전, 대형 사고 및 환경 재해와 같은 지배구조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반영함. 이러한 문제로 지적된 기업은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재편입이 불가능함. 제외 기준은 분기별 리밸런싱 시 검토됨. 2025년 2월 19일 이전에는 명칭이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였음.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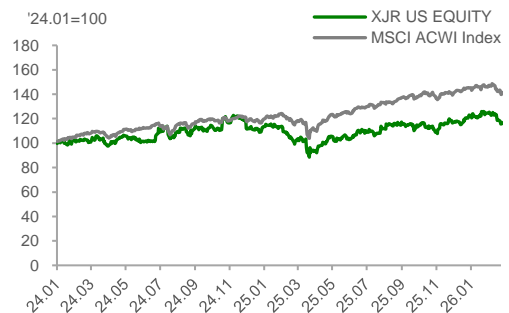
XJR는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되고 특정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 활동에 연루된 기업을 제외한 미국 중소형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의 핵심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투자자 중 ESG 관행이 우수하고 논란이 있는 산업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함.

XJR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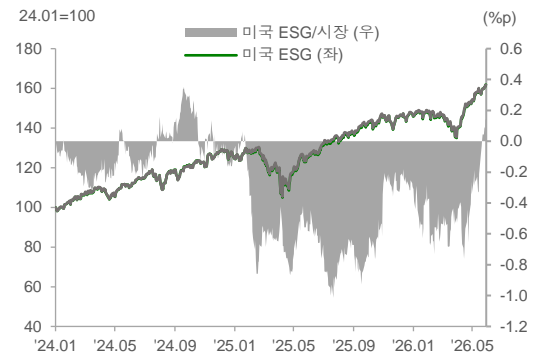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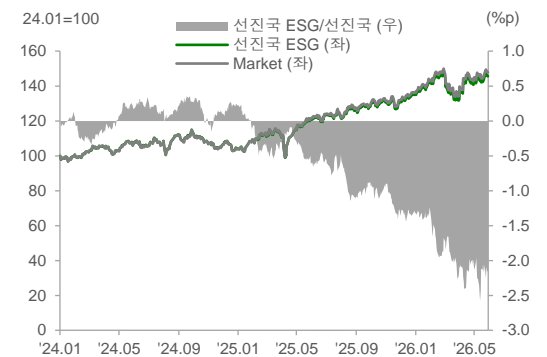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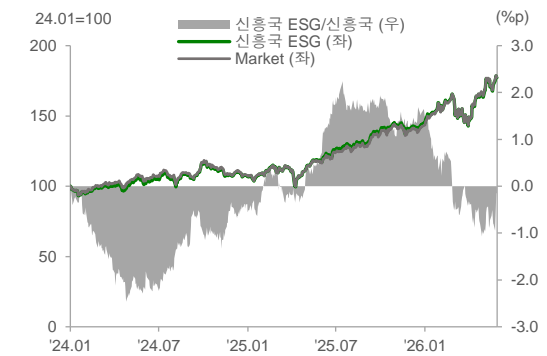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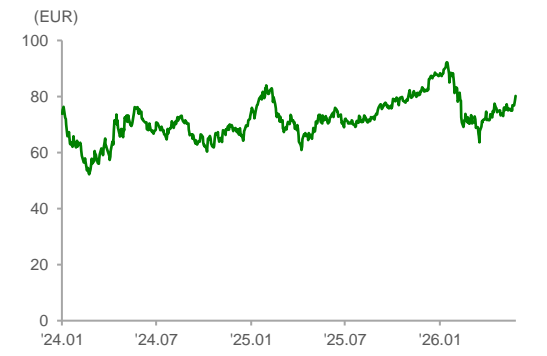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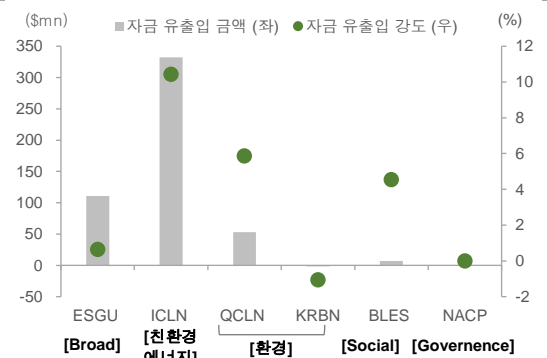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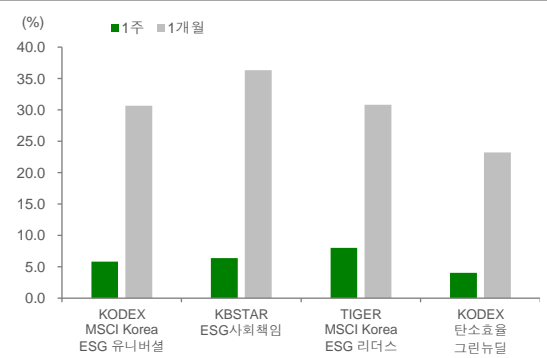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6,989	60	74.8%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9,219	13	14.8%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85	13	5.4%	13.4%
4	Social	5,978	5	4.6%	5.2%
5	Governance	510	3	0.4%	3.1%
6	기타	50	3	0.0%	3.1%
ESG 전체		129,732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리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7,528	1.28	6.35	10.43	10.25	111	311	0.6	1.8
	ESGV	13,301	1.64	7.22	12.17	10.32	43	176	0.3	1.3
	SUSL	1,137	1.08	6.06	10.16	10.44	6	7	0.6	0.6
	NULV	2,661	0.38	3.99	5.83	11.88	541	496	20.3	18.6
	NUSC	1,573	2.02	4.43	5.04	11.05	253	162	16.1	10.3
	ESGE	7,081	4.14	8.72	9.69	25.20	-81	116	-1.2	1.6
	ESGD	11,630	0.63	4.59	-1.15	9.45	100	-184	0.9	-1.6
	EAGG	4,776	0.66	-0.02	-2.41	-1.87	90	425	1.9	8.9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3,186	4.32	14.91	27.93	37.71	332	434	10.4	13.6
	TAN	2,236	9.52	27.67	30.23	47.12	208	621	9.3	27.8
Environment	QCLN	900	5.49	17.84	38.13	47.31	53	91	5.9	10.1
	SPYX	2,765	1.34	6.25	9.94	9.75	71	18	2.6	0.7
	CRBN	1,122	1.31	5.72	6.83	10.31	0	23	0.0	2.0
	KRBN	145	3.99	8.97	13.60	-2.77	-2	-27	-1.1	-18.5
Social	BLES	156	0.48	2.94	1.59	11.34	7	9	4.5	5.9
Governance	SHE	378	2.71	10.11	15.89	20.09	54	44	14.4	11.7
	NACP	74	2.27	9.63	16.40	19.98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35	5.8	30.6	42.1	141.3	0.0	-29.8	0.0	-12.7
FOCUS ESG 리더스	86	0.2	5.7	15.9	58.1	0.0	-53.2	0.0	-61.8
KODEX 200ESG	1,906	6.7	34.5	45.0	150.7	312.9	478.8	16.4	25.1
KBStar ESG 사회책임	5,432	6.4	36.3	50.0	163.3	1,235.2	2,341.7	22.7	43.1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72	7.1	35.3	47.7	152.8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201	8.0	30.8	45.8	118.3	-37.8	-50.7	-18.8	-25.3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552	4.0	23.2	30.6	116.4	-140.7	-140.7	-25.5	-25.5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59	4.0	22.9	30.8	116.1	0.0	-18.5	0.0	-7.1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58	4.1	23.5	31.2	117.1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6.05.21\) ㅍ 클리닉스 공장, 그린수소 전환...보조금 기반 첫 상업 프로젝트 가동-Impact-on](#)

보조금·구매계약이 만든 투자 승인...비용 장벽 넘은 그린수소
제지 공장 보일러 연료 전환...천연가스 절반 감축

[\(26.05.22\) 머스크, 세계 최초 100% 에탄올 선박 운항 성공-Impact-on](#)

메탄올 이어 에탄올...연료 선택권 확대
해운업, 탄소배출 압박 본격화

S (사회)

[\(26.05.20\) 원자재 업계 첫 스테이블 코인 협업...트라피구라, 엘살바도르 주유소 테더 결제 추진-Impact-on](#)

엘살바도르 주유소서 USDT로 연료·간식 결제
테더, 대출 넘어 상품거래 결제까지 확장

[\(26.05.26\) 대기업 이·퇴직률 감소 추세...두산에너지 1.2%, 하이닉스보다 낮아-ESG경제](#)

리더스인덱스 조사...SK하이닉스 1.3%, 삼성전자 10.1%
500대 기업 2022~2024년 이·퇴직률, 9.2%→7.8%→7.7%

[\(26.05.27\) 한화오션 '갑질' 논란...하자 없어도 하자보상금 3년뒤 돌려줘-ESG경제](#)

공정위 불공정계약 조사 착수...한화 "조선업 전반 관행" 입장
실제 거래구조·반환절차 문제 삼을 경우 제재가능성 배제 어려워
자금난 협력사가 영입이익 70% 급증 원청에 '무이자 자금' 주는셈

G (지배구조)

[\(26.05.15\) 스페이스X IPO 앞두고 美 연기금 반발... "머스크 권한 과도"-ESG경제](#)

뉴욕·캘리포니아 공적연금, 상장 구조 공개 비판
초과 의결권·강제중재 조항 등 주주권 약화 우려
초과 의결권 7년 내 종료·독립 이사회 구성 요구

[\(26.05.15\) 금융 벽 허무는 '디지털금융 동맹' 출범...하나금융 승부수 주목-ESG경제](#)

하나금융,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 투자...4대주주 등극
계좌 제휴 넘어 외화 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다각도 협력
금융의 디지털전환에 선제 대응...금융·가상자산 합종연횡 속도
합영주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제고에 그룹역량 집중"

[\(26.05.18\) 美 정유사, 바이오연료 사업 흑자 전환...투자 확대는 미지수-Impact-on](#)

의무 혼합 확대가 만든 실적 반전
RIN 가격 급등...크레딧 판매로 수익 확대
원료·디젤 가격 변수...투자 확대는 미지수

[\(26.05.19\) AI 환경영향 정량화 선구자 루치오니, "온디바이스 AI가 대안"-Impact-on](#)

"챗봇 쓰느라 지구 온난화 가속" 우려에 월가 그만두고 AI 환경 평가 개척
"범용 거대 모델만이 답은 아니다"... 적정 규모 시론
"지속가능성팀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

ESG

[\(26.05.18\) 현대차 워싱턴 대관사령탑, 1년만의 사퇴 이유?...5년새 두 배 늘어난 K-로비-Impact-on](#)

퍼거슨 1년만의 사퇴 배경은?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한국 기업 미국 로비 자금
친트럼프 인맥 확보전... 한화 부상, 현대차 공백

정책 ESG 뉴스

ESG

[\(26.05.26\) 6·3 지방선거 후 기후투자·PPA 확대되나...673조 지방 공공금융 '눈길'-Impact-on](#)

673조 지방 공공금융, 민간 금융사 기후투자 유도 수단 부각
 유희부지 활용 PPA 확대 의제...정당별 구체적 입장 갈려
 공시·조달·친환경 선거...지방정부 ESG 의제별 세부 답변
 후보별 응답 여부 갈려...지방정부 ESG는 '지역 생존 전략'

E (환경)

[\(26.05.15\) EU, AI 활용 공시·광고 표시 의무화...역외 기업도 영향권-Impact-on](#)

AI 활용 공시·보고서도 표시 대상...IR·ESG 부담 확대
 딥페이크 광고·AI 마케팅도 규제권
 EU 밖 기업도 적용...오픈소스 AI도 예외 없어

[\(26.05.15\) 인권위, 건물 온실가스 감축·거주 취약층 보호 권고-ESG경제](#)

2035 NDC 달성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에게 권고

[\(26.05.18\)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속도 내는 K-GX...정부, 상반기 녹색전환 전략 발표-Impact-on](#)

녹색전환, 산업 부담 아닌 성장 기회로 전환
 철강·석화·반도체 과제 논의...상반기 전략 발표

[\(26.05.18\) EU 의회,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개정안 논의...판매 금지 원칙 후퇴-Impact-on](#)

친환경 철강·재생연료 인정...실제 감축 부담 73%로 낮아져
 재생연료·PHEV까지 인정...내연기관 규제 완화 확대
 EU의회 중도 진영 반대...충전·배터리 투자 위축 우려

[\(26.05.21\) 규제 뚫었는데 먼저 냈다...美 기업들,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자발 제출-Impact-on](#)

법원서 멈춘 SB261...94개 기업은 먼저 냈다
 "환경 이슈 아니다"...이사회·ERM 체계 안으로 들어갔다
 "공시는 시작됐지만 수준 격차는 여전"

[\(26.05.27\) EU, 공정열 설비 전환에 4억유로 투입...철강·유리 등 65개 사업 지원-Impact-on](#)

EU, 공정열 설비 친환경 전환...10년간 탄소 660만톤 감축
 배출권 수익, 공정열 설비에 재투자...EU, 2차 지원 추진

G (지배구조)

[\(26.05.19\) 금융위, 모회사 지속가능성 정보 요구 제도화 추진-ESG경제](#)

공시 로드맵,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표 지연"
 기업에 실질적 도움될 공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계획

[\(26.05.20\) 플라스틱 재활용 못했더니 매년 2조6000억원...마크롱, 결국 보증금제 꺼냈다-Impact-on](#)

재활용 못한 만큼 돈 낸다...EU 플라스틱 부담금 압박 현실화
 보증금 반환제·재사용 확대 동시 추진
 지방정부·업계 반발...결국 비용 분담 충돌

[\(26.05.22\) SEC '상장사 분기 보고' 반기로 완화 추진...투명성 후퇴 논란-ESG경제](#)

단기 실적 압박 벗고 공시 비용도 절감 하도록
 3개월과 6개월 단위 보고 기업에 선택권 부여
 투자자들 정보 접근성 악화 우려 반발도 거세

일반 ESG 뉴스

ESG

[\(26.05.15\) ISSB 채택 관할권 42곳으로 확대...해외 자회사 '단일 공시 기준' 적용 추진-Impact-on](#)

해외 자회사도 ISSB 원문 적용 추진...같은 언어로 공시
ISSB 채택 42곳...패스포트 적용 기반 확대

E (환경)

[\(26.05.15\) UN 기후책임 결의안 표결 압박...ICJ 권고의견, 기후소송 혼돈다-Impact-on](#)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 20일 유엔총회 표결
미국 반대, 화석연료 퇴출 문구는 완화...손실·피해 등록부도 삭제
기후소송에서 이미 인용...반대 속에서도 기준으로 부상

[\(26.05.19\) 테마섹, 2030 탄소 감축 목표 제동... "AI·에너지안보가 발목" -Impact-on](#)

AI 전력수요 급증...2030 감축 경로 흔들
"직선형 넷제로는 어렵다"...속도 조절 나선 테마섹

[\(26.05.20\) 美 LNG업계, "EU 메탄규제 유예하라" ...장기 공급계약 '먹구름' -Impact-on](#)

"가스 경로 추적 불가능"...美 에너지부도 가세
기후정책 vs 에너지 안보 충돌...美 "대안 시장 많다"

[\(26.05.20\) 중국 상하이 해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가동...MS는 실패, 중국은 성공? -Impact-on](#)

차가운 바닷물로 서버 열 식히고 전력 95%는 해상풍력으로 충당
MS도 포기한 수중 데이터센터... 중국은 상업화 가속
데이터센터 자산도 자원 효율로 평가된다

[\(26.05.22\) 글로벌 배출권 수익 사상 최대...기업들 '탄소 원가' 피할 곳 없다-Impact-on](#)

ETS가 탄소세 추월...탄소가격 무계중심 '세금'서 '시장'으로
인도·일본 ETS 출범...신흥국까지 확산
CBAM 본격화...탄소가 무역 경쟁력 좌우

[\(26.05.26\) 선진국, 개도국 지원 기후재원, 연간 200조원 돌파-Impact-on](#)

민간 동원재원, '24년 305억달러로 역대 최대
공공재원 중심 지원 지속...국제 개발은행 역할 커
최빈국·소도서국, 공공 의존 높고 민간투자 장벽

S (사회)

[\(26.05.27\) 기업 인권·불평등 리스크도 공시 대상...TISFD 공시 프레임워크 초안 공개-Impact-on](#)

2년 만에 나온 첫 초안...기업 공시 항목 구체화
이사회·전략·인권실사까지...공시 범위는 가치사슬로 확대
AI·저임금·전환 갈등까지...재무 리스크 판단 범위 확대

G (지배구조)

[\(26.05.19\) 대기업 CEO, 내부 출신·기술 현장형 재편...재무·영업통 퇴조-ESG경제](#)

리더스인덱스 조사...기술·R&D 출신 늘고 내부 승진 84% 달해
평균연령 60세로 회귀...여성 CEO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2%

[\(26.05.21\) ESG 최대 리스크, 기후보다 거버넌스로 이동...글로벌스캔 조사-Impact-on](#)

글로벌 기업 담당자들, 거버넌스 리스크에 전례 없는 경고등
환경은 관리 영역 진입... 베일 벗는 기업 내부 윤리에 투자자들 주목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기준일 (20260331)	매수 : 88.13%	중립 : 10.63%	매도 : 1.25%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현대건설	-	-	-	-	-	-	-	-

